

보도자료

2005년 12월 9일 공보 2005 - 12 -17호

이 자료는 12월 12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11일 12:00 이후부터 취급가능

제 목 : 지급결제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

“붙임 참조”

문의처 :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과장 이한녕

Tel : 750-6633, Fax : 750-6660, E-mail : ecolhn@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붙임)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금년중 개인의 지급수단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결제정책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2. 조사기간 : 2005. 10. 24 ~ 11. 2일

3. 조사대상 : 전국의 금융기관 개인고객 755명

4. 조사내용

- 지급수단별 선호도, 카드형지급수단, 자기앞수표, 현금영수증,
신종 지급수단 등

II. 조사결과

(현금 및 자기앞수표 이용 감소, 체크카드 이용 확대)

□ 개인들은 2005년중 물품·서비스 구매시의 지급수단으로 신용
카드(28.2%), 현금(26.1%), 인터넷뱅킹(11.2%)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비중을 보면 현금, 은행창구 송금, 자기앞수표 등 전통
적인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낮아진 반면

인터넷뱅킹, 신용 및 체크카드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
비중은 높아짐

- 체크카드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사시의 9위(3.3%)에서 5위(4.9%)로 상승

개인들의 지급수단 선호도¹⁾

(%, %p)

지급수단	비중			선호순위 ²⁾
	2004(A)	2005(B)	증감(B-A)	
신용카드	27.6	28.2	0.6	1 → 1
현금	27.2	26.1	△1.1	2 → 2
인터넷뱅킹	9.5	11.2	1.7	3 → 3
은행창구 송금	6.1	4.9	△1.2	4 → 4
체크카드	3.3	4.9	1.6	9 → 5
은행지로	4.6	4.6	0.0	7 → 6
자기앞수표	6.1	4.5	△1.6	5 → 7
텔레뱅킹	5.4	4.5	△0.9	6 → 8
CD/ATM 계좌이체	4.0	4.4	0.4	8 → 9
휴대폰 결제	2.9	3.1	0.2	10 → 10
직불카드	2.6	3.0	0.4	11 → 11
가계수표	0.6	0.4	△0.2	12 → 12
전자화폐	0.2	0.2	0.0	13 → 13
계	100.0	100.0	—	—

주 : 1) 1~5순위별로 차등가점(5~1점)하는 가중합 방식으로 산정
 2) 각각 2004년도 및 2005년도 선호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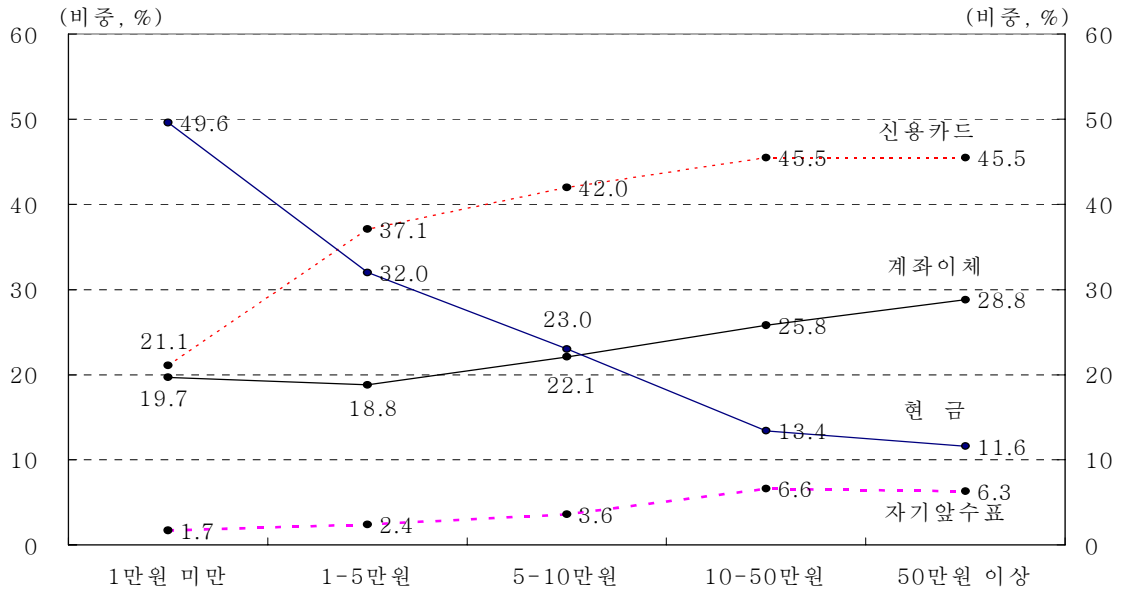
(구매금액 1만원 미만은 현금, 1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가장 선호)

□ 구매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현금, 구매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

— 인터넷뱅킹 등 각종 계좌이체는 대체로 금액이 커질수록 이용도가 상승

— 체크 및 직불카드는 1~10만원, 휴대폰 결제는 1만원 미만에서 주로 이용

금액대별 지급수단 이용비중 현황



(지급수단의 선택시 편의성을 가장 중시, 수수료에는 불만)

□ 개인들은 지급수단 선택기준으로 "이용의 편리성"(38.7%)과 "연말 소득공제효과"(22.8%)를 중시

— 그 외로는 "이용수수료"(16.4%), "사용의 안전성"(13.9%), "부가 서비스"(8.2%) 등을 감안

□ 불만사항으로는 "높은 수수료"(43.4%)를 가장 많이 지적

— 그 밖에 "비밀번호 누출 등 불법사용 방지대책 미흡"(34.9%), "공인인증 등 이용절차상 불편"(11.1%) 등도 제기

(보유카드중 실제 이용실적이 있는 카드는 약 60%에 불과)

□ 조사대상 개인들중 신용카드는 93.0%, 직불 및 체크카드는 각각 52.2% 및 36.4%가 보유

□ 평균 보유매수는 신용카드가 3매, 직불 및 체크카드는 각각 0.7매 및 0.5매임

□ 조사대상 개인들이 보유한 카드(신용, 직불, 체크)중 실제 이용실적*이 있는 카드는 약 60%에 불과

* 최근 1개월간 이용실적 유무 기준

— 신용카드는 평균 보유한 3매중에서 1.8매만 실제 이용

— 직불 및 체크카드는 보유한 0.7매 및 0.5매중 각각 0.4매 및 0.3매만 실제 이용

카드형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 매수별 구성비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보유	이용	보유	이용	보유	이용
0매	7.0	8.5	47.8	69.2	63.6	75.5
1매	15.0	31.9	37.0	25.2	28.2	21.5
2매	23.1	38.0	10.8	4.9	6.2	2.6
3매	23.5	15.4	3.1	0.4	1.6	0.4
4매	11.0	5.1	0.8	0.0	0.0	0.0
5매 이상	20.2	1.1	0.5	0.3	0.3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보유/이용 매수	3.0	1.8	0.7	0.4	0.5	0.3

(신용카드 선호 이유로는 과반수 이상이 후불결제기능 지적)

□ 신용카드를 직불 또는 체크카드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이유로는 "대금을 결제일에 모아서 결제 가능"(39.2%) 및 "할부구매 가능"(18.1%) 등 후불결제기능을 과반수 이상이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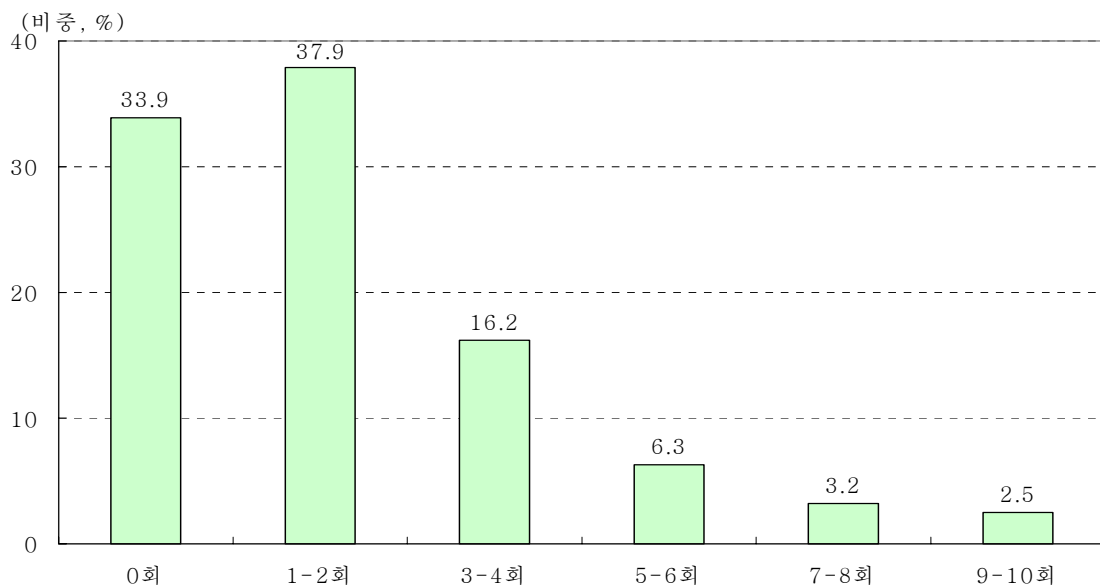
— 그 밖에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17.3%), "포인트적립 등 다양한 부가혜택"(10.2%) 등을 언급

(신용카드 할부구매제도는 결제 10회당 1~2회 이용)

□ 개인들은 신용카드 할부구매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33.9%), 동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 10회당 1~2회꼴로 가끔 이용(37.9%)

— 할부구매를 결제 10회당 3회 이상 이용하는 고객은 28.2%에 불과

신용카드 결제 10회당 할부구매 빈도 현황



(직불 및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신용카드보다 우대할 경우 3분의 2 이상이 동 카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

□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늘어나고 소득공제혜택이 신용카드보다 커질 경우 신용카드 대신 직불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80.5% 및 81.9%가 직불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

(자기앞수표 이용빈도는 낮아짐)

□ 자기앞수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6.8%로 지난해(82.0%)보다 낮아졌으며 이용빈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기앞수표 이용자 중에서 월 1회 미만 이용자의 비중(65.9% → 76.4%)이 크게 높아진 반면 월 1~3회(27.0% → 20.4%) 및 그 이상의 이용비율은 낮아짐

자기앞수표 이용구성비

(%)

	미이용	이용	1개월에 1회 미만	1개월에 1~3회	1주일에 1~3회	1주일에 4~5회	하루에 1회 이상
2004	18.0	82.0 (100.0)	54.1 (65.9)	22.2 (27.0)	3.7 (4.6)	1.2 (1.5)	0.8 (1.0)
2005	23.2	76.8 (100.0)	58.7 (76.4)	15.7 (20.4)	2.0 (2.6)	0.4 (0.5)	0.0 (0.0)

주 : () 내는 자기앞수표 이용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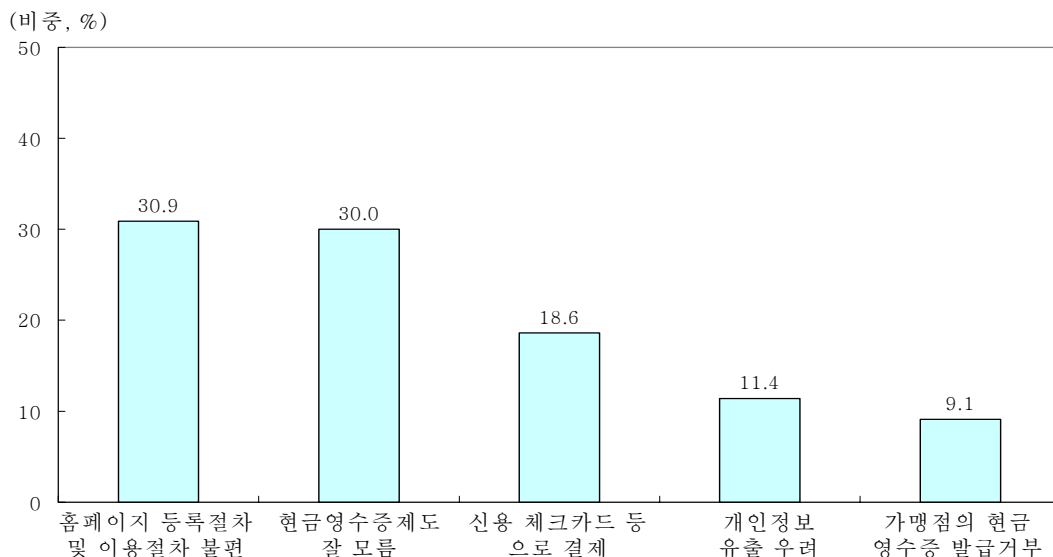
*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현금매출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영수증(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70.7%임

□ 개인들은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이용자 등록 및 이용절차 불편"(30.9%)과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30.0%)을 가장 많이 지적

— 그 외에 "5,000원 이상 결제시 카드(신용, 직불, 체크) 이용" (18.6%),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유출 우려" (11.4%) 등을 언급

현금영수증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신중 지급수단 이용 확대,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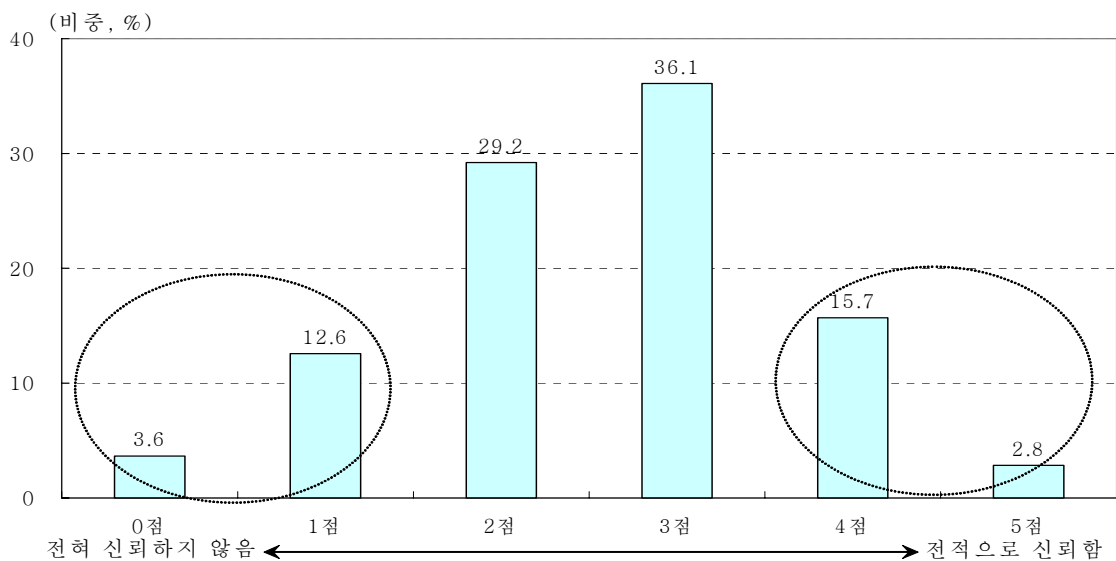
□ 인터넷, 휴대폰, 전자화폐, 개인휴대용단말기(PDA) 등 새로운 지급수단을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년(54.7%)보다 늘어난 62.3%를 차지

— 새로운 지급수단을 이용하지 않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절차 복잡"(35.8%), "비밀번호 누출 및 해킹 등 안전성 우려"(33.3%), "상당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18.7%), "은행 창구 등에서 은행직원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선호"(11.8%) 순으로 제시

□ 새로운 지급수단의 비밀번호 등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 수준은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이 54.6%로 나타남

— 신뢰도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과 1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18.5% 및 16.2%임

새로운 지급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Ⅲ. 종합 및 시사점

□ 금융기관 개인고객들은 2005년중 물품·서비스 구매시의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28.2%), 현금(26.1%), 인터넷뱅킹(11.2%) 순으로 선호하여 지난해 조사시의 순위와 동일

— 이용비중을 보면 현금, 은행창구 송금, 자기앞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낮아진 반면

인터넷뱅킹, 신용 및 체크카드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은 높아짐

— 구매금액대별로 보면 1만원 미만이면 현금, 1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

□ 지급수단 선택기준으로는 "이용의 편리성"(38.7%), "연말 소득공제효과"(22.8%), "이용수수료"(16.4%)를 중시

— 불만사항으로는 "높은 수수료"(43.4%)와 "비밀번호 누출 등 불법사용 방지대책 미흡"(34.9%)을 가장 많이 지적

→ 개인들의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 신용카드사 등 지급수단 제공기관이 제공서비스의 원가분석 정도를 제고하여 수수료 책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이용수단(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별로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를 적극 홍보하여 고객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또한 인터넷뱅킹 등 전자지급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지급수단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전자상거래의 위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기 발표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2005.9.27일)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변경시 고객이 이용불편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취급기관의 홍보 강화

- 개인고객들의 카드형지급수단 평균 보유매수는 신용카드가 3매, 직불 및 체크카드는 각각 0.7매 및 0.5매임
 - 신용카드를 직불 또는 체크카드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이유로는 후불결제기능을 과반수 이상이 지적
 - 소득공제혜택이 신용카드보다 커질 경우 개인고객들의 80% 이상이 신용카드 대신 직불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소비건전화 효과가 큰 직불 및 체크카드의 이용 활성화 필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70.7%로 나타나 동 제도가 비교적 조기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